

		보도자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
		배포일자	2021년 8월 19일(목) 총 2매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축산위생과장 라도경 ☎440-5571 • 담당자 김민석 ☎577-7631 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인천시, 추석 성수기 ‘축산물 수급안정’ 준비
- 도축작업 연장, 위생검사도 철저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추석을 한 달 앞두고 축산물 가격 안정과 원활한 물량 수급을 위해 축산물도매시장 개장시간을 앞당기는 한편,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위생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매년 우리 시는 추석 성수기 등 명절 기간에 일일 평균 도축 물량이 돼지는 약 25%, 소는 약 2배 이상 급증하며, 올해 추석 성수기에도 축산물 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이에 대비해 8월 23일부터 9월 10일까지 3주간 도매시장 개장 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, 공휴일인 9월 4일과 11일에도 도축작업을 실시해 축산물의 수급과 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.

한편 도축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. 도축 전 개체의 건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생체검사와 식용 부적합 개체를 폐기하기 위한 해체검사, 항생제 잔류 검사, 미생물 검사 등을 강화하고, 도축장 HACCP 운영을 철저히 감독해 위생적인 식육

공급에 앞장설 계획이다.

이 외에도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방역 강화 및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 최근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(ASF)의 유입 방지를 위해 도축장 출입 차량 및 관계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작업장 소독 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축 작업 연장을 통해 물량 수급을 원활히 하고,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축산물 먹거리 안전성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붙임> 관련 사진



◀ 가축운반차량(돼지)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체온측정을 하고 있다.



◀ 도축검사관이 돼지 도체에 대해 지육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.



◀ 동물약품(항생제) 잔류의심축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있다.